

사람 머리카락을 비료로 사용?

애기똥풀 · 화란국화에 적용 ... 식용작물 적용은 추가 연구 필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에 따르면, 과거 연구에서도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나오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른 퇴비 소재와 섞으면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머리카락만으로 효율적인 비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진은 상추와 쑥, 애기똥풀, 화란국화 등 4종의 식물에 퇴비처리를 하지 않은 머리카락 뭉치와 방출 속도 조절형 비료, 수용성 비료를 주거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4가지 방식으로 재배해 수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머리카락 비료를 사용한 식물은 아무런 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많았지만 빨리 자라는 상추나 쑥의 경우 시판 화학비료를 사용한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기똥풀과 화란국화에서는 머리카락 비료를 사용한 쪽의 수확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머리카락과 화학비료의 차이 중 일부는 부패해 양분을 방출하는 속도 때문에 생긴다며 빨리 자라는 식물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비료만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식용 작물을 키우는데 사람 머리카락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3>